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대처행동 차이분석*

- 2016 경주지진을 중심으로 -

Difference of Coping Behavior between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for Natural Disasters: A Sample of 2016 Gyeongju Earthquake

한진석** · 김남조***

Han, Jin-Seok · Kim, Nam-Jo

요약 : 지금까지 관광지의 재난, 위기, 위험 등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으나, 재해와 관련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지진에 대한 위험지각을 분석하고, 경주지진에서 나타나는 관광부문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은 모두 지지 및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과 언론보도에 대한 위험지각 요인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위험지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광객은 재해 발생 지역의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본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을 우려해 재해지역으로의 관광행동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은 지역의 경제 기반인 관광산업이 재해 발생으로 인해 멈춰서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위험지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은 재해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나, 언론의 과도하고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 관광산업의 다양한 서비스(숙박, 운송, 요식 등)가 원활하지 않게 운행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시사점은 관광학 분야에서 표면적으로만 다루었던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요인과 언론보도에 따른 위험지각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며, 실무적 시사점은 양측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차별화 된 대응책 및 대처방법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어 : 자연재해, 관광, 위험지각, 심리적 반응, 대처행동, 경주지진

ABSTRACT : Studies related to disasters, crises, and dangers in tourist destinations have continuously been conducted. However, studies that simultaneously analyz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regarding disasters were insufficient.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the risk perceptions of earthquake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who experienced an earthquake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noteworthy that risk perception of satisfaction and risk perception of media coverage applied in this study influenced psychological responses of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7522).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A2A01027522).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e-mail: noljs@hanyang.ac.kr
Ph.D. Candidate, School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njkim@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urists seemed to be mindful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disaster-affected area, and at the same time, feared that they would be socially dismayed and reluctant to travel to the disaster-affected areas. Local residents strive to minimize the contraction of the tourism industry due to the disaster, but their negative feelings about the media were high due to inaccurate and negative media reports. Theoretically, our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risk perception of satisfaction and risk perception of media which were not previously covered in the field of tourism. The practical implication includes identifying differences in awareness between the two sid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differentiated countermeasures and countermeasures for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Keywords : Natural disasters, Tourism, Risk perception, Psychological responses, Coping behavior, The Gyeongju earthquake

1. 서 론

지진, 폭풍, 해일, 폭설, 화산폭발,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는 인간이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현상으로 한번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자연재해 위험은 도시화, 세계화 등의 과정 속에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지진, 폭풍, 해일, 폭설, 화산폭발, 전염병 등의 발생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동은·최우정·심재현, 2008). 또한 자연재해는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Briere & Elliott, 2000). 특히 관광산업은 재해에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써(Chew & Jahari, 2014) 재해의 증가는 관광산업에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이남희·한진석·김남조, 2018; Lehto, Douglas & Park, 2008). 더욱이 관광지에서의 자연재해 발생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관광활동 위축, 불확실함 및 불안감 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김영우, 2005; 최재우·오경택·이철진, 2015).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 관광지인 경상북도 경주시의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대형지진이다.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불국사 등의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문화재가 손실 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방문율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다. 신용카드사에서 지진발생 전/후 경주지역의 신용카드 사용패턴 및 외지인 이용자 증감률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17.6%의 감소를 나타내어 경주방문 관광객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이남희·한진석·김남조, 2018). 또한 경주지역 방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9월 47.0%, 10월 58.3%가 급감하였다는 통계자료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한국은행, 2016.11.28.). 이러한 사례는 재난의 발생에 따라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뿐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그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송민경·김상혁, 2017).

재난에 대한 물리적 사회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재난이 발생한 곳이다. 지

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특히 사전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진으로 인해 두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심리적 영향이 급속도로 파급된다. 문화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주지역의 경우 후속되는 지진이 본진인지 여진인지 또는 얼마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사회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진으로 인한 이러한 두려움은 경주지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관광객들은 당초 경주시로 여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재난이 발생한 곳은 위험한 곳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각하는데 이따금 발생하는 생소한 위험은 과도하게 지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Zimmerman, 1986). 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통제 불능의 자연재해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지각한다(Heath & Abel, 1996).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근접한 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고도의 위험을 지각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재난관련 소식을 접한 잠재적 관광객들도 위험을 지각한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재난현장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소 미미하게 느끼는 위험지각이라도 재난현장의 충격적인 장면을 TV에서 반복해서 노출시키면 소위 공명효과(resonance effect)를 불러일으켜(우형진, 2006; Bryant & Thompson, 2001) 관광객들의 위험지각을 증폭시킨다.

지금까지 관광지의 재난, 위기, 위험 등과 관련된 연구(박상곤, 2004; 송학준·이충기·김도영, 2011; 이민재·서원석, 2012; 조아라, 2013; Chew & Jahari, 2014; Seabra, Abrantes & Kastholz, 2014; Tavitiyaman & Qu, 2013)는 주로 관광객의 측면에서 재해와 관련

된 위험지각, 관광지 이미지 변화, 여행지 선택 속성 및 의사결정과정 등을 다루고 있다(박정숙·이훈, 2017). 그러나 재해와 관련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Bell, Greene, Fisher and Baum(2003)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가 자원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지역주민은 위험을 더 많이 지각하여 순응한다고 보고 있다. 즉, 관광사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지역주민은 타 사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연재해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주지역과 같은 관광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지진에 대한 위험지각을 탐색적,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주지진에서 나타나는 관광부문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지진 발생 이후 재해는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이끌면서 주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하였으나(이남희·한진석·김남조, 2018; 한군태·송기인, 200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경각심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정도도 지대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에 대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대처행동에 대한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경주지진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파급영향을 규명·논의함으로써 향후 재해로 인한 관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주지진 이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위험지각에 대한 차이분석은 향후 이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한 관광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사후대책과 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잠재적 관광수

요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연재해와 관광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써 인적, 물적, 또는 환경적 손실의 광범위한 발생으로 인하여 불특정 지역의 사회기능 붕괴를 초래하는 현상을 나타낸다(이남희·한진석·김남조, 2018; Darsini, 2016; Shaluf, 2007). 자연재해는 장기간에 걸쳐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좌절과 실제적인 복구를 위한 자원 연결 문제가 항상 핵심적 요인으로 대두된다(오재호·허모랑·우수민, 2013; Shaluf, 2007).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예측불가능하며,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협력체로서의 해결책이 요구되기도 한다(조항민, 2013).

관광산업은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보인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중요 산업 분야로 육성하고 있지만 지진,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Chew & Jahari, 2014).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관광지로의 이동, 관광지에서의 소비, 관광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관광사업체와 이에 수반되는 관광종사자 등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진다. 관광목적지가 있는 지역의 경제는 곧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소비활동에서 비롯되는데 재해로 인해 관광목적지의 주요 매력물이 파손되고 재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기피하

게 된다면 관광목적지의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자연재해는 예측의 어려움, 광범위한 영향, 대응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광지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Ghaderi, Mat Som & Henderson, 2015; Mair, Ritchie & Walters, 2016). 2002년 9월 초 태풍 루사(Rusa) 때 246명의 사망·실종, 재산피해액 51,479억 원, 2003년 9월 중순 태풍 매미(Maemi) 때 130명의 사망·실종 42,225억 원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기상청, 2020; 환경운동연합, 2003). 당시 태풍 루사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의 석축을 무너뜨리고 난간을 훼손시켰으며 인근의 이름드리나무 60여 그루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하는 등(동아일보, 2002.9.2.) 강릉지역의 관광매력물을 파손시키거나 호텔과 음식점을 침수시켜 관광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켰다.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나타나는 파생적인 간접피해는 관광지의 관광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의 관광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그 지역으로의 여행을 삼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관광산업은 한동안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고 관광산업이 그 지역의 중심산업인 경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대중매체의 과장된 보도언론에 의해서 부가(附加)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반복 보도하고(송종길, 2003; 우형진, 2006; 정연구, 1998) 카메라나 현장기자의 시선 프레임 하에서 보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보도내용은 현장의 상황보다 대체로 과장

되게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박정연·김남조, 2019). 이에,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태풍/해일, 산불, 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ew & Jahari, 2014; Kuo, Chen, Tseng, Ju & Huang, 2008; Lehto *et al.*, 2008).

2. 위험지각

재해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학술적으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또는 위험지각(risk perception)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각된 위험은 감각에 의해 방문자(소비자)의 인지체계에 전해진 재해관련 정보가 실제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확실한 판단이나 행동과 관련이 깊다. 위험지각은 원래 Bauer(1960)의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각된 위험이론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소비자행동'으로 처음 소개되었다(Cheron & Ritchie, 1982). Cox and Rich(1964)에 의하면 지각된 위험은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과 연관이 되는 '한 결정의 산출(outcome)에 대한 불확실성'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에 처해질 양(amount)과 관련이 있는 '한 결정의 결과(consequence)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위험한 정도를 줄이기 위해 그들이 소비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변경하거나 결정을 미루거나 피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결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는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 실행의 위험(performance risk), 물리적/신체적 위험(physical risk),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시간 손실 위험(time loss risk)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Cheron & Ritchie, 1982). 즉, 위험지각은 다차원의 불확실성의 특

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지각은 근본적으로 '인지된 다양한 요인들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정도'(Wong & Yeh, 2009)로 정의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레저나 관광활동과 관련하여서 위험지각은 위에서 언급한 위험의 유형 외에 만족(satisfaction)에 대한 위험도 포함하기도 한다(Cheron & Ritchie, 1982).

재해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및 건강적 위험 등 관광지에 대한 위험지각을 증가시킨다(Mansfeld, 2006). 재해로 인한 위험지각은 재해유형(Kozak, Crotts & Law, 2007), 인구통계학적 특성(Park & Reisinger, 2010), 문화적 배경(Kozak *et al.*, 2007), 방문경험(Chew & Jahari, 2014; Fuchs & Reichel, 2011), 성격특성(Bouyer, Bagdassarian, Chaabanne & Mullet, 2001)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증가시켜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 등의 감정(Santana, 2004)과 부정적인 이미지(Chew & Jahari, 2014; Sönmez, Apostolopoulos & Tarlow, 1999)를 산출하게 하며 결국 방문의도에 영향을 준다. Chew and Jahari(2014)는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위험, 이미지,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재해에 따른 사회·심리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 지각은 정서적 및 인지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신체적 위험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위험은 재방문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Lehto *et al.*(2008)은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정서적 반응과 방문의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관광객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관광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관광객들의 방문의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해는 발생지

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 및 두려움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Kozak *et al.*, 2007).

결론적으로 위협지각은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는 인지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 기술재해, 전염병, 전쟁, 기후변화, 테러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지각이 나타날 수 있기에 관광활동도 위협지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Sönmez & Graefe, 1998). 따라서 위협지각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Schacter, 2000).

3. 심리적 반응과 대처행동

어떤 사상(event)이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것이라고 평가되면 스트레스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상이 위협해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보이면 사람들의 신체는 스트레스반응의 일부로서 정서적, 생리적, 행동적인 변화를 겪는다(Bell *et al.*, 2003). Selye(1959; Bell *et al.*, 2003에서 재인용)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반응의 일부로 경계반응 → 저항단계 → 소진단계로 나타나는 일반순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을 제시하였다. GAS는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자율신경 과정(예: 아드레날린 분비) 등과 같은 생리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스트레스요인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과정에서 인지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함을 Bell *et al.*(2003)은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해와 같은 다변화된 위협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조항민, 2013) 다양한 재해 관련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재해로 인한 충격과 피해로 인한 생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행동적 반응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재해를 경험한 생존자들은 위장염, 면역

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가 나타난다(Freedy & Simpson, 2007; Isaranuwatichai, Coyte, McKenzie & Noh, 2017). 재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이다영·나준호·심민영, 2015)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증가한다(O'donnell & Forbes, 2016). 또한 재해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Parkinson & Zara, 2013)과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Chou, Wu, Chou, Su, Tasi, Chao & Ou-Yang, 2007; Freedy & Simpson, 2007)과 같은 행동적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보이는 불안, 초조, 분노, 무력감,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들은 충격적 사건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으로(이다영·나준호·심민영, 2015; 임정선, 2016) 심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이 나타난다. PTSD는 생존자들에게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생각, 수면장애, 과민성과 분노, 당시 상황이 떠오른대 대한 고통, 대인기피, 사회성 위축, 기억력 저하, 무기력, 환청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영·나준호·심민영, 2015; 최용용·홍춘광·김춘경·이수연, 2004; Bell *et al.*, 2003; Nishi, Koido, Nakaya, Sone, Noguchi, Hamazaki & Matsuoka, 2012). 2006년 강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지역주민의 77.95%가 PTSD 수준의 심리적 반응을 겪었다(문성원, 2016; Choi, Byun, Han & Im, 2007). 심리적 반응은 크게 정서적 문제, 신체적 문제, 인지적 문제, 행동 문제, 영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Pines, 1993). 정서적 문제는 불안, 우울, 정서, 예민, 짜증,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등을 포함하며, 신체적 문제는 불면, 악몽, 통증 등을 포함한다. 인지적 문제는 기억력 감소, 사고 저하, 의사결정 부족 등

을 포함하며, 행동적 문제는 대인관계 위축, 알코올 과다 복용 및 약물 복용 등을 포함한다. 영적 문제는 자신감 상실, 의미 상실, 소외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심민영·이정현, 2015; Pines, 1993).

동일한 재해를 겪더라도 사람들의 반응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인적 적응유연성과 심리적 자원을 가지고 각각 다른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문성원, 2016). Selye(1959)의 GAS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1단계로 이 지진이 위협적인 것인가 위협적인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경계반응을 일으키고, 2단계로 스트레스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저항단계로 들어간다. Lazarus(1966; 1998; Bell *et al.*, 2003 재인용)의 인지적 대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처방안은 도주, 물리적인 공격, 언어적인 공격, 모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인적 특성과 상황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Baum, Fleming and Davidson(1983)과 Houts, Miller, Ham and Tokuhata(1980)에 의하면 대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위협적이라면 정보 추구나 건물 밖으로 대피(도주)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이행하는 행위와 심리적 방어기제(예: 거부) 사용, 약물 복용, 명상, 비위협적인 재해라고 재평가하는 완화행위로 분류하고 있다(Bell *et al.*, 2003).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양한 위험을 지각하게 되며, 그 후 스트레스반응이 도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처행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대처행위는 크게 지속적인 스트

레스요인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도피행위와 그러한 자극이 그다지 위협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개인적, 상황적 조건에 의해 스트레스반응이 약해져 순응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겠다. 순응(adaptation)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을 뜻한다(Bell *et al.*, 2003). 동일한 자극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약해져서 그 상황에 익숙해지게 된다. Bell *et al.*(2003)에 의하면, 순응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신경생리적 민감성이 점점 약해지거나 불확실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또는 덜 위협적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기피·회피와 같이 일상과 다른 활동패턴을 보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과는 다르게 그 지역에 머무르고 인내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지각하고, 지각된 위험은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게 되며,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스트레스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대처행동에 대하여 과정보호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과 자연재해를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한 잠재적 관광객들은 다소 다른 심리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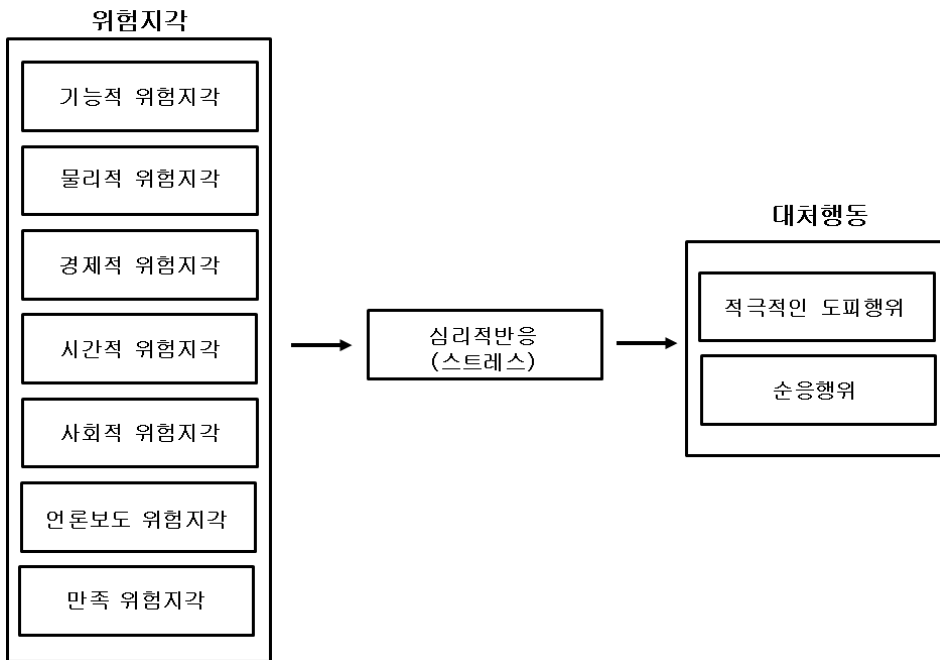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 지진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서 약 1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60여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으로 보물 1744호인 불국사 대웅전의 지붕이 일부 파손되었고, 국보 제31호인 첨성대는 지반 침하로 인해 북쪽으로 2cm가량 더 기울어 졌다. 인근의 월성 원전 1~4호기가 가동 중단 되었으며, 울산의 LNG 복합화력 4호기 발전 중단, 부산 도시철도 운행 중단, KTX 고속철도의 운행 중단 및 연착 등의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다(이수상, 2017). 또한 이로 인해 관광도시 경주의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Han & Kim, 2019). 이에 본 연구는 경주지역과 같은 관광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주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험지각,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각각의 영

향관계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객의 위험지각인식이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설 1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그에 따른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설 2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역주민도 관광객과 같은 조건하에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는 위험지각인식이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



<그림 1> 연구모형

칠 것이라는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1. 관광객이 지각하는 위험은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관광객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위험은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지역주민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3. 측정항목 도출 및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으로 설문지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 위험지각(37문항),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8문항), 대처행동(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인구통계적 특성은 관광객(9문항), 지역주민(6문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의 문항 수 차이에 따라 관광객은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은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송학준·이충기·김도영, 2011; Chew & Jahari, 2014; Morakabati & Kapuściński, 2016; Sönmez, Apostolopoulos & Tarlow, 1999; Yang, Sharif & Khoo-Lattimore, 2015)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개념들을 제외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위험지각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총 7개 요인 37 문항으로서 기능적 위험지각, 물리적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언론보도에 대한 위험지각,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언론보도에 대한 위험지각과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은 Han and Kim(2019)의 경주지진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이들은 심층인터뷰와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주지진 이후 위험지각에 대한 유형과 영역을 도출하였다.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총 8문항으로 선행연구(이나빈·안현의, 2016; 이미나·장은진·이미영, 2018; 임정선, 2016; Chan & Rhodes, 2014; Furr, Comer, Edmunds & Kendall, 2010; Pines, 1993)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대처행동은 총 8문항으로 선행연구(이다영·나준호·심민영, 2015; Bell *et al.*, 2003; Chou *et al.*, 2007; Freedy & Simpson, 2007; Isaranuwachai, Coyte, McKenzie & Noh, 2017; O'donnell & Forbes, 2016; Parkinson & Zara, 2013)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따른 도피행위 5문항과 순응행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주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광객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주지진발생 당시 경주지역을 방문하였거나, 경주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은 경주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경주지진발생 당시 실제 경험을 하였던 황리단길 및 주요 관광지 등의 관광업 종사자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6월 25일 ~ 7월 1일까지였으며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로 작성하여 응답자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편의추출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광객은 총 350부를 배포하여 335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고, 지역주민은 총 300부를 배포하여 292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두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관광객(여성 46.9%, 남성 53.1%)과 지역주민(여성 49.0%, 남성 51.0%) 모두 성별은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관광객 47.2%, 지역주민 45.2%). 20대를 제외한 타 연령층의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경우 경주지역을 계획대로 방문했다거나 지금은 중지하였지만 장차 경주지역을 방문할 잠재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부분의 거주지역이 서울지역(40.9%)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지역이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고른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도가 나타난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종별 분포를 들 수 있다. 관광대상 종사자의 비중이 47.5%, 비 종사자의 비중이 57.3%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광분야의 종사자 비율과 비종사자의 비율이 균등하다는 것은 관광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편중된 의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학적 측면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의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광객			지역주민		
		명(%)			명(%)
성별	여성	157(46.9)	성별	여성	143(49.0)
	남성	178(53.1)		남성	149(51.0)
연령	10대	8(2.4)	연령	10대	27(9.2)
	20대	158(47.2)		20대	132(45.2)
	30대	62(18.5)		30대	49(16.8)
	40대	44(13.1)		40대	39(13.4)
	50대	38(11.3)		50대	25(8.6)
	60대 이상	25(7.5)		60대 이상	20(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36(1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72(24.7)
	대학교 재학	105(31.3)		대학교 재학	101(34.6)
	대학교 졸업	146(43.6)		대학교 졸업	104(35.6)
	대학원 재학	48(14.3)		대학원 재학	15(5.1)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계속)

관광객		명(%)	지역주민		명(%)
방문횟수	0	189(56.4)	거주기간	1년~5년	67(22.9)
	1~2	116(34.6)		6년~10년	64(21.9)
	3~5	28(8.4)		11년~20년	53(18.2)
	6이상	2(0.6)		21년~30년	46(15.8)
방문동반 유형	혼자	26(7.8)		31년~40년	34(11.6)
	친구·연인	113(33.7)		40년 이상	28(9.6)
	가족	132(39.4)	직종	숙박업	5(1.7)
	직장동료	57(17.0)		요식업	37(12.7)
	동호회	1(0.3)		문화관광해설사	2(0.7)
기타	6(1.8)	관광안내		6(2.1)	
방문동기	학습 및 체험	24(7.2)		일반소매업	4(1.4)
	사교	17(5.1)		기념품점	1(0.3)
	일반관광	169(50.4)		기타 관광종사자	69(23.6)
	유적관광	16(4.8)		종사하지 않음	168(57.5)
	여가시간활용	69(20.6)			
체류기간	행사참가	10(3.0)			
	기타	30(9.0)			
	당일	64(19.1)			
	1박2일	147(43.9)			
	2박3일	113(33.7)			
거주지	3박4일	9(2.7)			
	4박5일 이상	2(0.6)			
	서울	137(40.9)			
	경기도	94(28.1)			
	강원도	12(3.6)			
	경상도	47(14.0)			
	전라도	8(2.4)			
	충청도	16(4.8)			
제주도	1(0.3)				
기타	20(6.0)				
전체	335(100)	전체	292(100)		

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모든 항목에서 0.8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Nunnally, 1978). 또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요인의 도출을 검증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각 요인 중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요인 이외에 새로운

요인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직각회전방식의 베리맥스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 0.5 이상, 공통성 0.5 이상, 고유값 1.0 이상인 요인들로 추출하였다. 총 분석문항 53개 중 관광객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 10개를 제외하고 43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지역주민은 15개를 제외한 38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광객은 위험지각 7개 요인, 심리적 반응 1개 요인, 대처행동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지역주민은 위험지각 7개 요인, 심리적 반응 1개 요인, 대처행동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은 기존연구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경제적 위험지각, 물리적 위험지각, 기능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언론보도에 대한 위험지각,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위험지각에 대한 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요인은 1개가 도출되었는데 주로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것으로 심리적 반응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행동 요인은 2개가 도출되었으며, 각각 스트레스요인에 따른 적극적 도피 행위와 순응행위로 명명하였다.(<표 2>, <표 3> 참조)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관광객)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크론바 (α)
경제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숙박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된다	3.10 (1.005)	.864	.874	3.950 .949
	지진으로 인해 요식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된다	3.05 (1.008)	.857	.894	
	지진으로 인해 여객운수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	3.08 (1.007)	.846	.852	
	지진으로 인해 여행산업(여행사)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	3.09 (1.024)	.827	.841	
물리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3.68 (1.120)	.882	.871	3.348 .892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3.68 (1.112)	.857	.855	
	지진으로 인해 재단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3.33 (1.159)	.700	.747	
	지진으로 인해 외적 상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된다	3.33 (1.169)	.626	.731	
기능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관광객원이 파괴될까 봐 걱정이 된다	3.63 (1.163)	.549	.601	3.300 .860
	현지의 교통체계가 원활할 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	3.32 (1.025)	.810	.715	
	재난발생시 관광종사원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53 (1.020)	.806	.762	
	재난발생시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54 (1.031)	.801	.757	
시간적 위험지각	현지에서 관광정보를 제대로 획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2.96 (1.081)	.626	.598	3.259 .919
	관광지 및 관광매력물을 제대로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02 (1.069)	.568	.582	
	호텔에서의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2.83 (1.175)	.831	.901	
	식당에서의 음식물 제공서비스가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2.71 (1.185)	.808	.880	
기차, 버스 등이 연착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2.70 (1.322)	.747	.812		
	3.29 (1.126)	.665	.704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관광객)(계속)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크론바 (α)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	경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것이다	3.14 (1.402)	.823	.831		
	경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더 좋은 가치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2.96 (1.334)	.797	.835	2.824	.873
	경주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정된 시기에 경주를 방문할 것이다	3.33 (1.412)	.732	.680		
언론 보도에 따른 위험지각	언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	3.43 (1.192)	.878	.860		
	언론의 보도가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 된다	3.24 (1.181)	.858	.879	2.479	.883
	언론보도로 인해 경주지역 방문이 꺼려진다	2.96 (1.262)	.714	.796		
사회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 질서가 깨질까 봐 걱정이 된다	3.01 (1.139)	.789	.885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미풍양속이 깨질까 봐 걱정이 된다	2.89 (1.209)	.738	.806	2.142	.881
	지진발생지역으로의 관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걱정이 된다	3.07 (1.316)	.628	.756		
Sum of variance=78.899%, KMO=.907, Chi-Square=7944.555, Sig=.000						
심리적 반응 (스트레스)	작은 울림에 대해서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2.43 (1.243)	.932	.869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2.43 (1.245)	.912	.832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주 화를 낸다	2.37 (1.181)	.897	.805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쉽게 통제할 수 없다	2.28 (1.214)	.886	.785	6.187	.957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2.42 (1.191)	.871	.759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자주 화를 낸다	2.50 (1.264)	.849	.721		
	지진이란 말을 들으면 예민해진다	2.75 (1.279)	.846	.715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모두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다	2.57 (1.313)	.836	.700		
Sum of variance=77.338%, KMO=.916, Chi-Square=2942.205, Sig=.000						
적극적인 도피행위	불안감으로 인해 앞으로는 경주지역을 방문하지 않기로 생각하였다	2.58 (1.367)	.857	.828		
	불안감으로 인해 다른사람들에게 경주지역을 방문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2.67 (1.401)	.857	.800		
	지진으로 인해 아예 다른 관광지를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3.11 (1.402)	.855	.837	3.846	.946
	관광목적지를 예정보다 빨리 빠져나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	3.19 (1.340)	.818	.844		
순응행위	머무르는 시간을 예정보다 줄이겠다	3.15 (1.330)	.803	.836		
	비상구 또는 피난처를 확인하게 되었다	3.53 (1.247)	.875	.850		
	지진활동에 대비하면서 관광활동에 참여하겠다	3.27 (1.229)	.819	.772	2.713	.879
	여행기간 중 가족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겠다	3.62 (1.162)	.804	.792		
Sum of variance=81.991%, KMO=.888, Chi-Square=2567.561, Sig=.000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지역주민)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크론바 (α)
사회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미풍양속이 깨질까 봐 걱정이 된다	2.70 (1.099)	.852	.867	3.193 .911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 질서가 깨질까 봐 걱정이 된다	2.86 (1.088)	.841	.835	
	관광객과 오해나 마찰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	2.55 (1.094)	.778	.796	
	지진발생지역으로의 관광을 오는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걱정이 된다	3.05 (1.164)	.713	.748	
경제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요식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된다	3.08 (1.081)	.858	.888	3.144 .903
	지진으로 인해 숙박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된다	3.13 (1.093)	.839	.853	
	지진으로 인해 여행산업(여행사)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	3.20 (1.109)	.824	.868	
	관광객이 경주지역에 쓸 여행비용을 아까워 할까봐 걱정이 된다	2.55 (1.116)	.674	.630	
물리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해 외적 상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된다	3.48 (1.014)	.834	.806	3.143 .885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3.65 (1.075)	.823	.725	
	지진으로 인해 관광객원이 파괴될까 봐 걱정이 된다	3.49 (1.014)	.821	.765	
	지진으로 인해 재난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3.46 (1.003)	.793	.729	
기능적 위험지각	관광객이 관광편의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14 (1.060)	.874	.836	2.499 .866
	관광객이 관광지 및 관광매력물을 제대로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21 (1.104)	.873	.863	
	재난발생시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52 (1.017)	.736	.686	
시간적 위험지각	호텔에서의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2.77 (1.113)	.847	.900	2.352 .886
	식당에서의 음식물 제공서비스가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2.64 (1.132)	.826	.880	
	기차, 버스 등이 연착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3.32 (1.151)	.705	.734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	경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선택할까 봐 걱정이 된다	2.84 (1.079)	.922	.871	1.836 .863
	경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더 좋은 가치를 얻을 것이라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	2.93 (1.061)	.911	.871	
언론 보도에 따른 위험지각	언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	3.48 (1.030)	.910	.905	1.763 .872
	언론의 보도가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 된다	3.37 (1.015)	.841	.873	
Sum of variance=81.499%, KMO=.856, Chi-Square=4875.053, Sig=.000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주 화를 낸다	3.36 (1.323)	.991	.982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3.42 (1.325)	.990	.981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쉽게 통제할 수 없다	3.55 (1.319)	.990	.981		
심리적 반응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자주 화를 낸다	3.41 (1.321)	.990	.980	7.374	.986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모두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다	3.68 (1.307)	.989	.978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4.30 (1.578)	.936	.877		
	작은 울림에 대해서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4.28 (1.580)	.936	.876		
	지진이란 말을 들으면 예민해진다	4.63 (1.747)	.849	.720		
Sum of variance=92.179%, KMO=.905, Chi-Square=9507.952, Sig=.000						
적극적인 도피행위	관광사업체의 영업기간을 줄였다	3.26 (1.030)	.865	.902	3.203	.865
	관광사업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3.59 (1.079)	.821	.748		
	관광객에 대해 더욱 많은 친절을 배필었다	4.21 (1.242)	.780	.644		
	경주 광고와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4.02 (1.260)	.779	.652		
순응 행위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는 횟수가 많아졌다	3.68 (1.307)	.874	.939	3.099	.844
	비상구 또는 피난처를 확인하게 되었다	3.55 (1.319)	.867	.948		
	지진에 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4.63 (1.747)	.864	.939		
	지진과 관련된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4.30 (1.578)	.726	.530		
Sum of variance=78.779%, KMO=.870, Chi-Square=3230.029, Sig=.000						

3. 가설검증

- 1) 가설 1. 관광객이 지각하는 위험은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객의 위험지각인식이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1.3%,

F 값은 32.9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7개의 위험지각 요인 중 사회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의 3개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요인은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4〉 참조).

〈표 4〉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경제적 위험지각	-.030	.067	-.026	-.456	.649		
물리적 위험지각	.005	.069	.004	.067	.947		
기능적 위험	.058	.074	.044	.787	.432		
시간적 위험	.264	.065	.260	4.055	.000***	32.909	.413
만족에 따른 위험	.150	.051	.169	2.919	.004**		
사회적 위험	.277	.064	.279	4.302	.000***		
언론에 따른 위험	.036	.054	.036	.659	.510		

주: ***p<.001, **p<.01

2) 가설 2.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관광객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객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처행동 중 적극적 도피 행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12.3%, F 값은 40.5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처행동 중 순응행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4.7%로 나타났으며, F 값은 94.973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대처행동 중 적극적 도피 행위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응에 따른 행동 요인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5〉 참조).

3) 가설 3.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위험은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인식이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1%, F 값은 11.751로 설명력은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심리적 반응 간의 관계에 비해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7개의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의 3개 요인은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표 5〉 관광객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적극적인 도피행위	.242	.038	.350	6.365	.000***	40.513	.123
순응행위	.248	.025	.497	9.745	.000***	94.973	.247

주: ***p<.001

〈표 6〉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사회적 위험지각	-.116	.965	-.010	-.121	.904		
물리적 위험지각	.126	.907	.010	.139	.890		
경제적 위험	2.585	.929	.219	2.782	.006**		
기능적 위험	.781	.842	.064	.927	.355	11.751	.041
시간적 위험	1.858	.896	.166	2.073	.039*		
만족에 따른 위험	.262	.694	.023	.378	.706		
언론에 따른 위험	1.747	.815	.163	1.916	.050*		

주: **p<.01, *p<.05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요인은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6〉 참조).

4) 가설 4.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은 지역주민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주민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처행동 중 적극적 도피 행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10.5%, F 값은 34.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처행동 중 순응 행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0.5%, F 값은 74.7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은 적극적 도피 행위 요인과 순응 행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표 7〉 참조).

5)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위험지각,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관광객과 지역주민 두 집단이 각각 지각하는 위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해보면, 먼저 관광객은 사회적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적 위험지각,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에서 잠재적 관광객들은 경주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지진으로 인한 미풍양속과 같은 사회적 질서의 붕괴,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시선

〈표 7〉 지역주민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적극적인 도피행위	.244	.042	.324	5.832	.000***	34.010	.105
순응행위	.245	.028	.453	8.648	.000***	74.791	.205

주: ***p<.001

부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지각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적 위험지각의 측면에서는 관광객은 호텔·식당·기차나 버스에서의 서비스가 제 때 제공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보낼 시간이 아까울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에서는 경주여행시 불만족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경주지역이 안정화되었을 때의 방문 등을 통해 만족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주민은 경제적 위험지각이 지역주민의 심리적 반응,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위험지각,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의 전반적인 여행관련 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위험지각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적 위험지각의 측면에서는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호텔·식당·기차나 버스에서의 서비스가 제 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에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한 위험지각에서는 부정확한 언론 정보에 대한 걱정과 과도한 부정적 보도의 행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관광객은 재해 발생 지역의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본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을 우려해 재해지역으로의 관광행동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은 지역의 경제 기반인 관광산업이 재해 발생으로 인해 멈춰서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위험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재해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나, 지역사회에 대한 언론의 과도하고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 관광산업의 다양한 서비스(숙박, 운송, 요식 등)가 원활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4. 종합논의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위험지각인식에 대한 차이점 및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의 대상별 차이점, 대처행동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 등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관광객의 위험지각인식 중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적 위험지각,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인식 중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

<표 8> 위험지각,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관광객		지역주민	
사회적 위험지각	*지진으로 인한 미풍양속 및 사회적 질서 붕괴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시선 부담	경제적 위험지각	*현지 여행관련 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걱정
시간적 위험지각	*호텔·식당·기차·버스 등 서비스 제공 불투명 *경주지역 여행에 투자한 시간에 대한 아까움	시간적 위험지각	*호텔·식당·기차·버스 등 서비스 제공 불투명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	*경주지역 여행에 있어 불만족한 상황의 발생에 대한 우려 *타 지역으로의 여행 *안정화 이후의 방문 예정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	*부정확한 언론 정보에 대한 걱정 *과도한 부정적 보도 행태에 대한 걱정

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시간적 위험지각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요인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위험지각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연착, 호텔 및 식당에서의 서비스 제공 문제, 지진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에 대한 시간적 소비의 아까움 등을 포괄하는 요인으로서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한 위험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관광산업이 기반인 경주 지역의 관광서비스 미흡에 따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기에 이에 따른 위험지각이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은 관광객들이 지진발생지역으로의 관광을 계획함에 있어 관광의 만족부분에 대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지 변경, 사태 안정 이후로 방문 연기 등의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에 따른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지역주민은 경주지진의 재해 정도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경주지역 관광에 대한 만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인식을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인식에서는 만족에 따른 위험지각인식과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언론에 따른 위험지각인식은 다수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걱정,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오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언론의 행태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언론

의 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은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위험을 적게 지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가 진행된 시기가 지진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진발생 초기 언론보도는 과대, 허위 등의 보도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은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마찰, 관광에 따른 사회적 시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요인으로서 관광객들은 지진 발생 후 발생지역으로의 관광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따른 위험지각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민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험지각은 숙박·요식·운송·여행업 등의 관광지에 대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걱정, 관광객이 지진발생 지역의 관광지에서 사용하게 될 경제적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걱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산업의 타격에 대한 위험인식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위험지각인식과 기능적 위험지각인식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크게 심리적 반응(스트레스)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지진의 재해 정도가 관광객의 관광체험이나 지역주민의 관광산업을 억제시킬 정도로 관광자원의 물리적 마비, 기능적 마비를 가져오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서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은 적극적인 도피행위와 순응행위로 구분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에게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은 순응 행위에 따른 행동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도피행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지진 발생이후 차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감하는 스트레스가 점차 순응의 과정으로 변화한다는 Bell *et al.*(2003)의 검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자연재해는 인간이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현상으로 한번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특히 관광산업은 재해에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써(Chew & Jahari, 2014) 재해의 증가는 관광산업에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이남희·한진석·김남조, 2018; Lehto, Douglas & Park, 2008). 더욱이 관광지에서의 자연재해 발생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관광활동 위축, 불확실함 및 불안감 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최재우·오경택·이철진, 2015).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지역에 지진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관광지의 재난, 위기, 위협 등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으나, 재해와 관련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지진에 대한 위협지각인식을 분석하고, 경주지진에서 나타나는 관광부문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에서 관광객은 7개의 위협지각 요인 중

시간적 위협지각, 만족에 따른 위협지각, 사회적 위협지각 등의 3가지 요인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서는 지역주민이 7개의 위협지각 요인 중 경제적 위협지각, 시간적 위협지각, 언론보도에 따른 위협지각 등의 3가지 요인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가설 2와, 가설 4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바탕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인식차이에 대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객은 본인이 사용하게 될 시간의 효용성, 관광지를 여행함에 있어 만족에 대한 중요성, 재난발생 이후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지역주민은 재해발생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타격, 관광서비스 제공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에 대한 걱정, 언론보도의 부정확성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각 집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위협지각에 대한 인식영역의 비중이 다름이 검증되었다. 대처행동 요인을 적극적인 도피행위 요인과 순응행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 모두 적극적인 도피행위 요인과 순응행위 요인에 영향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나, 두 요인 중 순응행위 요인의 비중이 더욱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충격적 경험에서 벗어나 점차 순응에 따른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과거의 재해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 및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관광학 분야에서 표면적으로만 다루어왔던 만족에 따른 위협지각요인과 언론보도에

다른 위험지각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두 요인이 심리적 반응(스트레스)과의 영향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위험지각요인에 대한 이론적 축적에 기여하였으며 관광학 분야에서 위험지각의 구성개념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학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위험지각 인식과 심리적 반응(스트레스), 그리고 대처행동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사회심리적 파급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인식차이를 규명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차별화된 대응책 및 대처방법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주지진이러는 자연재해 현상을 다룸으로써 지진뿐만 아니라 폭풍, 해일, 폭설, 화산폭발,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차이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소 미미하게 느끼는 위험지각이 매스컴에서 재난현장의 충격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나타나는 공명효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관광홍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매뉴얼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재난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관광객의 거주 지역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으며, 재해에 대한 대상을 지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된 분석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지진이러는 자연재해에 대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기존연구와 현장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지만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공통된 심

리적 특성도 있었던 반면에 각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대조 비교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단 지진이러는 자연재해에 대해 두 집단이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대처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둔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도 도출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차이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각 집단별로 독립된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만족에 대한 위험지각 요인과 언론보도에 따른 위험지각 요인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검증 및 이론적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기상청(2020.3.10). 기상재해통계(http://www.weather.go.kr/weather/lifenindustry/disaster_04.jsp)
- 김동은 · 최우정 · 심재현(2008). 전 세계 자연재해 추이 및 유형 분석. 『물과 미래』, 41(2), 56-61.
- 김영우(2005).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한 해외여행자의 관광동기 및 위험지각이 관광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9(3), 291-313.
- 동아일보(2002.9.2.). [드러나는 피해 실태] 마을진입로 붕괴, 구호손길 마저 차단.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902/7858673/1>
- 문성원(2016).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 심리적 반응, 적응, 예방.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2(3), 237-247.
- 박상곤(2004). 테러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국 9.11 테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2), 77-94.
- 박정숙 · 이훈(2017). 자연재해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pp. 203-

- 209), 한국관광학회, 세종대학교.
- 박정연·김남조(2019). 언론에서의 미세먼지 보도가 국내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위험지각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3(8), 49-69. <http://dx.doi.org/10.17086/JTS.2019.43.8.49.69>
- 송민경·김상혁(2017). 자연재난이 관광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자연자원중심지와 문화자원중심지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32(7), 99-116.
- 송종길(2003).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학준·이충기·김도영(2011). 신종플루인식이 단체관광객의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 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5(7), 189-209.
- 심민영·이정현(2015). 『재난과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오재호·허모랑·우수민(2013). 20세기이후 발생한 재난 특성 분석을 통한 미래 변동 추이 전망. 『Crisisonomy』, 9(1), 47-74.
- 우형진(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254-276.
- 이나빈·안현의(2016).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35(4), 525-562.
- 이남희·한진석·김남조(2018). 재해로 인해 문화관광지에서 나타나는 제(諸) 현상 분석: 2016 경주지진을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30(3), 45-74.
- 이다영·나준호·심민영(2015). 재난유형에 의해 심리적 반응과 신체적 외상: 인적재난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54(3), 261-268.
- 이미나·장은진·이미영(2018). 직업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방식에 대한 개념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9(2), 3-24.
- 이민재·서원석(2012). 남북 간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위험인지와 보호동기, 여행회피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인 잠재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관광학연구』, 36(7), 33-53.
- 이수상(2017). 신문기사에 나타난 경주지진 사건의 사회적 이슈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53-72.
- 임정선(2016). 재난과 심리적 외상: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입법정책』, 10(1), 65-95.
- 정연구(1998). 『최근 우리 언론의 재난 보도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 재난 보도와 발전 방향 모색,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조아라(2013). 다크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동일본대지진의 재난관광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30-146.
- 조항민(2013).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 관한 연구: 태풍·폭우·폭염에 대한 주요 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Crisisonomy』, 9(6), 21-44.
- 최용용·홍종관·김춘경·이수연(2004).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5(3), 505-518.
- 최재우·오경택·이철진(2015). SNS 관광정보 가치와 지각된 위험, 관광지 전환행동 간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524-533.
- 한국은행(2016.11.28.). 지역경제보고서.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 한균태·송기인(2005). 국내 신문의 환경 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한국방송학보』, 19(3), 288-324.
- 환경운동연합(2003.9.24.). 태풍 '매미' 관련 피해 조사보고서. (<http://kfem.or.kr/?p=24535>)
- Bauer, A. (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Chicago, IL, 384-398.
- Baum, A., Fleming, R., & Davidson, M. (1983). Natural disaster and technological catastrophe. *Environment and Behavior*, 15(3), 333-354.
- Bell, A., Greene, C., Fisher, D., & Baum, A. (2003).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

- (이진환·홍기원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해당번역서 원본출판년도 2001)
- Bouyer, M., Bagdassarian, S., Chaabanne, S., & Mullet, E. (2001). Personality correlates of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1(3), 457-466.
- Briere, J., & Elliott, D. (2000).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sequelae of natural disaster exposure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4), 661-679.
- Bryant, J., & Thompson, S. (2001). 『미디어 효과의 기초』,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 서울: 한울.
- Chan, S., & Rhodes, E. (2014). Measuring exposure in Hurricane Katrina: A meta-analysis and an integrative data analysis. *PLoS One*, 9(4).
- Cheron, J., & Ritchie, B. (1982). Leisure activities and perceived risk.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139-154.
- Chew, T., & Jahari, A. (2014). Destination imag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risks and revisit intention: A case of post-disaster Japan. *Tourism Management*, 40, 382-393.
- Choi, N., Byun, J., Han, D., & Im, S. (2007). Psychological impact and depressive response of sufferers of natural disaster, a torrential downpou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16(2), 139-149.
- Chou, C., Wu, C., Chou, P., Su, Y., Tsai, Y., Chao, S., & Ou-Yang, C. (2007). Epidemiologic psychiatric studies on post-disaster impact among Chi-Chi earthquake survivors in Yu-Chi, Taiw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1(4), 370-378.
- Cox, F., & Rich, U. (1964). Perceived risk and consumer decision-making—the case of telephone shopp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32-39.
- Darsini, P. (2016). Disaster management concomitant to right to life: An analysis. *Imperi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2(2), 373-382.
- Freedy, R., & Simpson Jr., M. (2007). Disaster-relat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role for the family physicia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6), 841-846.
- Fuchs, G., & Reichel, A. (2011). An exploratory inquiry into destination risk perceptions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of first time vs. repeat visitors to a highly volatile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32(2), 266-276.
- Furr, M., Comer, S., Edmunds, M., & Kendall, C. (2010). Disasters and youth: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8(6), 765.
- Ghaderi, Z., Mat Som, P., & Henderson, C. (2015). When disaster strikes: The Thai floods of 2011 and tourism industry response and resilienc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4), 399-415.
- Han, J., & Kim, N. (2019). Q-methodology analysis of perceived risks in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towards natural disaster: The 2016 Gyeongju earthquake in Republic of Korea. *Proceedings of 2019 TTRA International Conference*.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Grand Hyatt Hotel Melbourne Australia.
- Heath, L., & Abel, D. (1996). Proactive response to citizen risk concerns: Increasing citizens' knowledge of emergency response practices. *Journal of*

- Public Relations Research*, 8(3), 151-171.
- Houts, S., Miller, W., Ham, S., & Tokuhata, K. (1980). Extent and dura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of persons in the vicinity of Three Mile Island. In *Proceedings of the Pennsylvania Academy of Science* (pp. 22-28), Pennsylvania Academy of Science.
- Isaranuwatthai, W., Coyte, C., McKenzie, K., & Noh, S. (2017). The 2004 tsunami and mental health in Thailand: A longitudinal analysis of one-and two-year post-disaster data. *Disasters*, 41(1), 150-170.
- Kozak, M., Crotts, C., & Law, R. (2007).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risk on international travel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9(4), 233-242.
- Kuo, I., Chen, C., Tseng, C., Ju, F., & Huang, W. (2008). Assessing impacts of SARS and Avian Flu on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to Asia. *Tourism Management*, 29(5), 917-928.
- Lazarus,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 _____ (1998).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Fifty Years of the Research and Theory of RS Lazarus: An Analysis of Historical and Perennial Issues*. UK: Psychology Press.
- Lehto, X., Douglas, C., & Park, J. (2008). Mediating th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travel intention.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3(2-4), 29-43.
- Mair, J., Ritchie, W., & Walters, G. (2016). Towards a research agenda for post-disaster and post-crisis recovery strategies for tourist destinations: A narrative review. *Current Issues in Tourism*, 19(1), 1-26.
- Mansfeld, Y. (2006). *The role of security information in tourism crisis management: The missing link*. In Y. Mansfeld, & A. Pizam (Eds.), *Tourism, security & safety from theory to practice* (pp. 271-290). Burlington, MA: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Morakabati, Y., & Kapuściński, G. (2016). Personality, risk perception, benefit sought and terrorism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5), 506-514.
- Nishi, D., Koido, Y., Nakaya, N., Sone, T., Noguchi, H., Hamazaki, K., & Matsuoka, Y. (2012). Peritraumatic distress, watching televi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rescue worke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PLoS One*, 7(4).
- Nunnally, C. (1978). *Psychometric theory*. (2d Ed). NY: McGraw-Hill.
- O'donnell, L., & Forbes, D. (2016). Natural disaster, older adults, and mental health: A dangerous combination.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8(1), 9-10.
- Park, K., & Reisinger, Y. (2010).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influ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travel risk on international travel. *Tourism Geographies*, 12(1), 1-24.
- Parkinson, D., & Zara, C. (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2), 28-35.
- Pines, M. (1993). *Burnout*.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 Santana, G. (2004). Crisis management and tourism: Beyond the rhetoric. *Journal of*

- Travel & Tourism Marketing*, 15(4), 299-321.
- Seabra, C., Abrantes, L., & Kastenholz, E. (2014). The influence of terrorism risk perception on purchase involvement and safety concern of international traveller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0(9-10), 874-903.
- Selye, H. (1959). *Stress-a tensão da vida*. Ibrasa.
- Schacter, M. (2000). "Capacity building": A new way of doing business for development assistance organizations. *Policy Brief*, 6.
- Shaluf, I. (2007). Disaster type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6(5), 704-717. <https://doi.org/10.1108/09653560710837019>
- Sönmez, F., Apostolopoulos, Y., & Tarlow, P. (1999). Tourism in crisis: Managing the effects of terro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 13-18.
- Sönmez, F., & Graefe, R. (1998). Determining future travel behavior from past travel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risk and safe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71-177.
- Tavitayaman, P., & Qu, H. (2013). Destination image and behavior intention of travelers to Thail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isk.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0(3), 169-185.
- Wong, Y., & Yeh, C. (2009). Tourist hesitation in destination decision mak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1), 6-23.
- Yang, L., Sharif, P., & Khoo-Lattimore, C. (2015). Tourists' risk perception of risky destinations: The case of Sabah's eastern coast.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5(3), 206-221.
- Zimmerman, R. (1986). *The management of risk*. In V. T. Covello, J. Menkes & J. Mumpower (Eds.),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pp. 435-460). Boston, MA: Springer.

2020년 4월 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20년 4월 24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20년 4월 2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